주일 메시지 요약 **2025년 1월 11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사43:22-28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는 중에 근본 언약을 먼저 주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이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누리고 고백하는 자는 승리하고 정복하는 역사를 보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새 해를 맞이하여 신년집중기도회 모임을 한 주간 행하는 중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단 메시지와 함께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며 승리하고 증인 될 것인가에 대한 귀중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단어들을 언약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여정이었으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미리 주신 이정표를 마음에 담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와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누림이 있는 개인 기도의 축복과 말씀 운동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므로 말씀 인도와 성령 인도를 누리는 새 해가 되길 바랍니다. 지속하면 300%의 개념이 설 것이고 그 그림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인도 받고 찾아가면 약속하신 그 땅에 누구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300%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당연히 되어질 완전한 성공의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과거를 살리고 오히려 거기서 언약을 잡고 미래의 답을 발견하는 역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1)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할 수 있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복하신다면 우리에게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2)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십니다. 사49: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3)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롬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항상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이며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영원한 근본 언약입니다
4)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근본 영적인 영원한 기억뿐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평생 육신적으로도 하시는 그 기억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5) 롯은 벧후2:7에 의하면 의인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재앙에서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고 후손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시대에 아주 근접한 지역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의 경우는 육신적으로도 그 지역을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꼭 같은 언약으로 구원을 받은 두 사람의 인생에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6) 약속의 피에 대한 믿음은 둘 다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에게

는 언약을 행하는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약속의 피 제사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한 유일한 약속이며 인생 응답에 대하여도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단은 신자의 인생 근본입니다. 이 인생 근본을 한 사람은 행하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 차이에 대한 이유의 근본은 이 단에서 찾아야 정상일 것입니다.

7) 그래서 22절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렀으면 기억하셨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인데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 그 부르는 방법을 23절에 쓰고 있습니다.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 마디로 단을 쌓는 행위가 없었고 성전에서 드리는 약속의 피 제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9) 그러나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 27절 그러나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28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고 야곱이 진멸 당하도록 내어 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10)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고쳐라. 언약을 회복하고 약속의 피를 내게 가져오며 돈으로 향품을 사서 너희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고 너희가 진멸 당하게 내어 주지 않을 것이며 내 백성이 비방거리가 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1) 너는 네 번제의 어린 양을 내게로 가져 오라 그리하여 나를 공경하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라 그리하여 내게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의 문제를 기억하고 네 기도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네 인생을 롯과 같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같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진심이 되면 인생은 반드시 역전이 될 것입니다

12) 인생은 간단합니다. 답이 간단하기 때문이며 그 답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언약의 피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서밋 시간입니다. 약속된 서밋을 찾아가는 300%의 시간입니다. 정시기도 시간이며 지속되면 망대 여정 이정표에 이르게 됩니다.

13) 언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언약이 깊어지고 인생도 깊어집니다. 기준은 언약이며 방법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의 번제물 어린양을 하나님께로 가져 가는 길입니다.

14) 이 언약으로 하나님을 부르므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 같이 각 현장과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지역을 정복한 지교회 사역자 되고 한 지역의 지도자가 되며 세계복음화 하는 증인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